美 불교 지도자들, 트럼프 정책에 '반기' 들다

100여 불교도, '트럼프 정책 비판 성명' 발표

정치권에 강경 입장 '이례적'
"새 행정부 정책, 퇴행적"
비구 보디 · 잭 콘필드 등 동참
약자 보호에 불자들 동참 당부



미국 불교도 100여명은 '트럼프 대통령 정책 비판 성명서'를 4월 3일(현지시간) 결의 발표했다. 사진은 연설 중인 트럼프 대통령 모습. 사진출처=thinkprogress

"우리는 민주주의와 사회복지가 위험에 빠진 이 나라(미국)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다."

100여 미국 불교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사회적 약자들을 해치고 있다면서 불자들에게 함께 저항할 것을 독려했다. 대규모 불교도가 정치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은 미국사회서 드문 일이기 때문에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불교 잡지 'Lion's Roar'는 미국 불교도들이 결의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정책 비판 성명서'를 4월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불자들이 사랑과 관용, 지혜, 용기 등의 정신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 행정부의 정책이 '퇴행적'이라고 규정하며, 수백만 명이 고통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과 연대를 통해 변화와 민주주의의 해방을 되찾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정책이 승리한다면 취약지역 및 비(非)특권계층에 속한 수백만의 국민들이 고통 받을 것"이라며 "시대의 희망은 깨지고,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들의 (민주적)삶은 사라질 것이다. 국제분쟁과 환경파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불교도로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의의를 짚고 "불교는 전 세계적으로 연민과 평화의 종교로 존경받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정책에 반대하는 이 운동에 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교가 어떤 정당이나 이데올로기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불교도들은 트럼프 시대에서 취약계층을 원조할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추방 위험에 빠진 불법 입국자들을 위해 보호 공간을 빌려주거나, 그들을 위한 시위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다.

이들은 "우리 불교공동체는 보호와 미래비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호처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위해 앞장서 싸울 수도 있다"면서 약자 계층과 적극적인 동맹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멜빈 맥레드 'Lion's Roar' 편집장은 "이와 같은 불교도들의 정치적 연대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광범위한 불교도들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라 평했다.

이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엔 불교 활동가 비구 보디(Bhikkhu Bodhi) 스님 등 불교도 뿐 아니라 세계적 명상 지도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잭 콘필드(Jack Kornfield), 목사 앤젤 교도 윌리엄 등이 포함된다.

비구 보디 스님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는 불교 윤리 가치와 강하게 상충되는 법안과 정책들이 제안됐다"며 "이에 정치에 침묵하던 불교도들도 입을 열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비구 보디 스님은 불교도들이 앞으로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동굴서 12년 수행한 불자, 순회강연 떠나

타라 초잉라모, 네팔서 20년간 수행한 경험 공유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어 호주까지 순회 강연

네팔에서 20년 넘게 은둔하며 수행을 한 외국인 불자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타라 초잉라모다. 그는 네팔문명으로부터 6일 정도 걸어야 존재하는 1400m 높이의 동굴에서 12년 동안 세월을 보냈다. 경험에 대해 그는 "매우 아름다웠다"고 짧게 대답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청년시절 영적인 탐구에 심취하게 되었고, 십대 후반에 불교로 개종해 그의 불교 지도 법사를 따라 네팔로 향했다.

초잉 라모는 "많은 시간을 혼자 생각하며 보낸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며 "수행기간 동안 배웠던 것은 '부정적인' 사고를 나쁜 생각으로 여기지 않는 대신 단순히 고려해야 하는 것 정도로 여겼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행하면서 자연스레 올라오는 생각들을 관찰했다. 그 생각들은 질투와 아집, 집착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았으며, 그런 생각들과 자만심과 같은 습관적 감정이 그의 삶을 중압감이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는 "불교적 전통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이기적인 추구로 여겨지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영적실천'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초잉라모는 그의 경험을 수행과 깨달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


12년간 네팔의 한 동굴에서 은둔 수행을 한 외국인 불자 타라 초잉라모(사진) 씨가 뉴질랜드 및 호주 전역으로 순회 강연을 떠난다. 사진출처=ODT

지난해 런던에서 그녀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 홀로 동굴에서 수행할 때 느꼈던 감정과 점차 수행에 깊이 빠지게 된 경험을 나눴다.

그는 "내가 이렇게 수행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앞으로 수행을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며 "나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초잉라모는 앞으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넬슨만델라, 크라이스트 처치, 퀸즈 타운 등을 거쳐 호주 전역까지 강연회를 펼칠 예정이다.

이보형 객원기자


사진출처=EPA

"아빠! 절에 트랜스포머가 나타났어요"

태국 논타부리주에 위치한 왓타키엔 불교사원에서 한 가족이 영화 '트랜스포머'의 대형 캐릭터 조형물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방콕 포스트(Bangkok Post)'는 4월 4일 트랜스포머와 사찰의 이색적인 모습을 공개했다. 자동차 부품과 재활용 고철로 만들어진 이 트랜스포머 조형물은 사원의 주지 스님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입했다.

주지 스님은 "어린이를 비롯한 젊은 신자들의 사원 방문과 흥미를 끌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무슬림, 2075년 기독교인 따돌릴 것"

퓨리서치센터 조사 "상대적으로 젊고 출산율 높아"

2075년엔 이슬람이 지구촌에서 최다 신자를 보유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월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연구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20년 내 무슬림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수를 앞지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0~2015년 전 세계 무슬림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비율은 약 31%로, 같은 기간 세계 무슬림 비율 24%를 크게 넘어섰다.

또한 같은 기간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비율은 33%로, 기독교 신자 비율 31%를 조금 웃돈 수치를 기록했다.

무슬림이 다른 종교인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출산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미래에 무슬림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30~2035년 무슬림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약 2억2,500만 명,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2억2,400만 명이지만, 2055~2060년엔 각각 2억3,300만 명, 2억2,600만 명으로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조사됐다.


퓨리서치센터는 2075년엔 무슬림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수를 앞질러, 이슬람교가 지구촌 최대 종교가 될 것이란 조사 결과를 밝혔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73억 인구 중 기독교인 비중은 31%, 무슬림은 24%로 뒤를 잇는 상태다. 비종교인은 16%, 힌두교인은 15%이며, 불교는 7%로 뒤를 이었다.

퓨리서치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모든 신생아가 부모 종교를 따를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아이가 종교를 바꿀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日 14C 이후 '첫 비구니 주지' 탄생

하나조노 스님, 정토진종 종립학교 회장 선출

수세기 만에 일본 사찰에서 비구니 스님이 주지가 돼 화제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4월 4일(현지시간) "젊은 비구니 스님이 정토진종의 종립학교인 코쇼학교의 회장을 맡았다"며 "이로써 14세기 이후 첫 여성 지도자가 나오게 됐다"고 보도했다.

샤쿠 신교라는 법명을 갖고 있는 사야카 하나조노 스님〈사진〉은 23세로 올봄에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코쇼학교 31대 회장인 신조 스님의 딸로 9세 때 승려의 삶을 선택했다.

신조 스님이 2001년 사찰의 수장으로 취임했을 때 그는 여성들이 사찰 내 임원직을 맡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었다.

하나조노 스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의 일본 수의학 생명과학대학에서 공부했다. 쥐의 십이지장과 궤양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면서 힙합 댄스 동아리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쾌활한 학생이다.



하나노조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여성들이 쉽게 방문 할 수 있는 사찰이 되도록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보형 객원기자



위패몰 .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2단 합동위패 ①
2단 합동위패 ②
3단 합동위패 ①
용전대 ①
용전대 ②
목걸이마이크 ①
목걸이마이크②
축원카드 보관함
소대위패①
소대위패②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051)244-2040

위패몰.com

七寶寺

